

오피니언

월/요/광/장

서선희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노인으로 호칭하기보다는 어르신으로 호칭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어르신은 어른에 대한 존대어라 할 수 있는데, 존대 받는 어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피아제(J. Piaget)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 발달은 '형식적 사고' 단계에 이르면 완결된다고 한다. 형식적 사고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단계의 인지 능력을 말한다. 이 같은 사고는 청년기에 완결되며, 이때 습득한 인지능력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 삶이 광범위하게 연구되면서 피아제 이론과는 다른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피아제가 말한 것과는 달리 인간의 인지 능력은 청소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발달하며, 그 결과 노년기에는 청소년기 때와는 다른 보다 원숙한 인지

능력, 즉 '후형식적 사고'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후형식적 사고란 사물을 절대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해하며, 상호 모순된 사고와 경험을 반영적으로

또한 후형식적 사고라는 개념의 발견은 수학적적이고 논리적 사고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는 지혜라는 새로운 인지 영역이 있고, 이것은 경험과 삶의 체험 속에서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형식적 사고가 추론에 의해서 경험 없이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후형식적 사고는 삶의 현장에서 세월과 더불어 깨닫게 되는 경험적 지식으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지혜'와 같은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지혜는 세월과 비례한다. 세월이 반드시 지혜를 가져오는 것은 아

그러나 동양적 사고 체계에서 보면 지혜도 완성이 아니다. 공자는 "子曰甯武子邦有道則知邦無道則愚其知可及也其愚不可及也"(영무자는 나라에 도가 있으면 지혜로웠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어리석었다. 그 지혜로움은(많은 사람이) 따를 수 있지만 그 어리석음은(감히) 따를 수 없다고 하였다).

신영복은 이 문장을 지(知)보다는 우(愚)가 어렵다는 것, 즉 사람이란 지혜를 기보다는 어리석은 착하기가 더 어렵다는 뜻으로 풀다. "어리석음이 더 최고의 형태"(신영복 강의, 184)인 것이다. 안다 할지라도 아무 데서나 나서지 않는 것, 때로는 알고 있어도 잠잠히 입을 다물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지혜가 결코 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등을 행하는 사람이 참다운 지혜를 갖는 자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참다운 어른다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명석"하며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겸손과 사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에 있다.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통합할 수 있게 되는 사고 능력이다. 후형식적 사고를 하게 되면 형식적 사고의 적응 때에는 달리 일상의 문제들을 전혀 새로운 조망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후형식적 사고라는 개념은 인간의 발달이 종래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청년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죽을 때까지 변하고 적응하며 다시 그 틀에서 또 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알려 준 셈이다.

니지만 세월없이 가는 가질 수 없는 것이 지혜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혜는 젊은 사람에 비해 늙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상대적 우위이다.

나이 들어가며 늙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 지혜이다. 젊은 웃을 입고 젊은 세대들의 말을 배우며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해도 지혜만큼 확실하게 노인의 어른으로서의 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기고

이명재



요즘 들어 한국 각 지역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지자체 중심으로 여러 문화 기념관을 경쟁적으로 세우고 있다.

그들은 서울이나 지방에 건립된 여러 사설 문화관보다 대체로 큰 규모를 이루고 있다. 오래전에 건립된 충북 옥천의 '정지용문학관', 강원도 춘천의 '김유정문학관', 원주의 '토지문학관', 평창의 '이효석문학관', 경북 안동의 '이육사문학관', 영양의 '조지훈문학관' 등이 떠오른다. 또 근대 문물 연 진북 고창의 '미당시문학관', 경기 양평의 '황순원 문학마을'도 그렇다.

또한 보성 벌교에는 조정래문학을 기리는 '태백산맥문학관'이 세워졌을 뿐더러 전북의 김제에도 '아리랑문학관'이 건립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순천만 연안에는 최근 '순천문학관'이 개관되었으며 해남에도 내후년까지 '황순원문학관'을 세우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다.

그럼에도 정작 광주에 아직도 문학관 하나 세워져 있지 않음은 크게 반성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모름지기 빛고을의 심장에 이렇다 할 문화 기념관 하나 없음을 예향인 호남 수도로서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게 부끄러운 일이다. 오래전에 월드컵 축구장

빛고을 문학관 건립

리·목월문학관' 측에서는 전국규모의 문학상을 제정, 해마다 시상하는 한편 이념에 부속 문예지 '東里-木月'까지 펴내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경남의 통영과 거제에서는 유치환 시인을 두고 서로 자기 고장 출신이라면서 오랜 법정 투쟁을 계속하며 통영이 먼저 '정마문학관'을 세운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준공된 '대전문학관'은 개관을 준비 중이며 '대구문학관' 역시 1만 평의 시유지에 150억 예산으로 내후년 준공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전한다.

우리 고장만 보더라도 지역에 따라 근대 문학관 설립이 활발한 편이다.

이미 답양에는 전통적인 '한국가사관'이 들어서 있고 목포에는 갖바위에 다 각 장르에 우뚝 선 업적을 남긴 김우진 박희성 차범석 및 김현을 한데 모은 '목포문학관'으로 위세를 자랑한다. 강진에는 조출한 '承鄣-玄鳩文學館'이 들어 선 데 이어 근대 문학특구로 지정된 장흥에는 명산 자락에 '天冠文學館'이 자리 잡고 있다.

을 건립하고 최근 야구장을 확장 신축 하자는 판에 어찌 이렇까 모르겠다.

문학의 세기라는 이즈음에 문화예술의 땅이던 문학을 이렇게 홀대하고서 연례의 광주 비엔날레와 광주미술관은 제대로 되겠는가. 균형발전과 전국 지역의 대비적 시각에서도 도저히 자존심이 용인되지 않는다.

광주에는 적어도 한국 현대문학의 큰 공로자인 용어(龍兒) 박용철과 다형(茶兒) 김현승을 기리는 현대문학관을 건립 요하게 세워야 한다.

그래야 살아있는 문학공간으로서 관광과 전시로써 지방문화를 더 효율적으로 선양함은 물론이요, 각종 백일장이나 강연회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뒤늦게나마 광주가 전남·북의 여러 고을에서 모여든 인재들과 그들 작품을 아우르고 원활하게 육성하는 호남의 중심도시로서 한국과 세계로 열린 빛고을의 본연한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문학평론가·중앙대 명예교수)

3자녀 가장 군복무기간 단축 등 다각적 방안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저출산 국가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 때문에 정부가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특히 3자녀 가족에 대해서는 주택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있기까지 하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3자녀를 키우는 가장에게는 군 입대를 면제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면 최소한 지금 당장이라도 3자녀를 둔 가장의 복무기간을 1년, 또는 6개월로 단축시켜주는 게 타당하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때에는 남자들의 경우 대학 졸업, 다른 대학 학사편입, 대학

원 재수와 입학 등을 거치면서 아직도 취업을 못한 채 군에 입대하는 남자들이 상당수 있다.

취업이 되지 않았지만 당장 아이부터 가진 이유는 대체로 아내가 연상이거나 혹은 부부간 서로 아이들이 많아 더 늦어지면 출산하기에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 같은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3자녀를 둔 가장에게 군복무기간 단축 혜택 부여, 상근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 가족 주거지 인근부대 배치, 자녀 출산과 양육시 휴가기간 대폭 확대 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해 주기 바란다.

▲김원준·광주시 광산구 삼기동

기고

이상태



영국이 학력 하위 10% 아이들을 음악가, 과학자 등이 직접 교육하여 '창의적 미래과외'로 키워내는 교육실험을 한다.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지휘자 스티브 모팰은 "런던사람 20%를 먹여 살리는 것은 문화·예술 산업이라고 단언했다. 하위 10%의 아이들도 버리지 않는 영국 교육의 실상이다.

'시간에 의한 공간의 동시성'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극복한 현대 사회를 가장 쉽게 대변한다. 이것은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소통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곧 글로벌 사회에서의 소통은 창조와도 직결된다.

트위터(Twitter) 등의 소셜 네트워킹

술·연극·국악 등 네 장르의 예술교육을 시행한 결과, 자신과 환경에 대해 이전 보다 긍정적으로 여기는 성향이 증대됐다. 또한 '창의적 인성' 항목 중 '유머감'과 '인내심'이, 자아지각 영역에서는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처한 불우한 환경을 감안할 때 1년이라는 길지 않은 예술교육 기간에 이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에 앞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아름다운 품성과 풍부한 감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시책을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다. 남도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연계한 관소리 한 대북

문화·예술 교육은 최고의 투자

이나 UCC 열풍의 주역 '유튜브'처럼 창의적 아이디어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다. 수천 종의 휴대전화를 만드는 삼성이 단 한 종의 휴대전화를 만드는 애플의 공세에 고전한 것도 '아이폰' 신화를 창조한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그 자체가 전략적인 미래 산업이기도 하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키우는 일은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 전략이다. 첨단 IT장비를 활용하여 필요한 지식은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맞게 짜여진 교육 체제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이 점에서 지식 자본과 감성 자본이 조직의 유지,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했던 톰슨(Thomson)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 사회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과의 공감을 통해 즐거움과 의미를 찾는 하이터치의 사회라는 점에서 '따뜻한 가슴'과 '결계를 넘나드는 창의성'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커다란 지표라 하겠다.

국내에서도 메세나의 일환으로 모기업이 107명의 어린이들에게 음악·미

부르기, 예술의 생활화를 위한 1인1휴대 악기 연주하기, 밝고 맑은 우리 동요 부르기 등을 통한 심성 교육 등은 하이컨셉 시대의 감성적·종합적·비선형적 사고능력, 공감력,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지닌 인재의 육성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의 미래학자인 공병호는 '10년 법칙'에서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 수준의 성과와 성취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 정도의 집중적인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할 그날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은 이제 서서히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한발 앞선 문화·예술 교육은 광주를 블루오션으로 개척할 미래 인재 산실의 요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 광주 학생들이 기술과 산업의 트렌드, 수요자 요구의 변화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을 설계할 미래가 멀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미술·음악·디자인이 함께 발전하며 오늘날의 총체적인 문화산업을 꽃피운 세계의 크리에이티브(Creative)공장 뉴욕처럼 말이다.

(광주시 동부교육장)

베이비 시터 전문 교육으로 맞벌이 주부 불안 덜어야

우리 집에는 2살과 4살인 딸이 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는 주부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가장 큰 과제이고 힘든 일이다. 집 근처에 딱히 아이를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다 보니 불가피하게 육아를 해주는 베이비 시터를 구해서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솔직히 믿고 맡길만한 제대로 된 베이비 시터를 구하기 쉽지 않다.

베이비 시터를 구해도 그 사람들이 아기를 잘 봐줄지, 아가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지, 혹시 잠만 재우려고 하지는 않을지, 말

을 안 듣는다고 때리지나 않을까, 그리고 애보기 귀찮다고 온종일 비디오펀 틀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등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아기를 봐주는 모든 베이비 시터 아줌마들이 다 그렇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베이비 시터는 전문 직업인의 역할을 해야 하며 그에 걸맞은 전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적절한 교육은 물론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서 모든 맞벌이 주부들이 맘 편히 아기를 맡길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송경희·광주시 광산구 대신동

시설

'金·申·李' 자진사퇴 사필귀정이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했다. 8·8 개각 때 임명된 10명의 후보자 가운데 총리 후보를 비롯한 3명이 낙마하게 된 것이다. 이들 세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사필귀정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들 3명은 처음부터 '비리 백화점'이라고 비난받을 정도로 온갖 의혹이 제기됐다. MB 정부 들어 고질처럼 돼 버린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기피에 더해 논문 표절까지 실정법 위반과 도덕적 하자가 두드러지고 고위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부적격자였던 것이다.

이번 '도미노 낙마' 사태는 자기 관리에 소홀한 한 당사자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지만 그보다도 청와대 인사검증 기 능의 무능과 부실이 더 큰 책임이 있다. 특히 이런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임명권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고위공직을 수행해야 할 자가 그 직위와 직무에 합당한 도덕성과 자질, 능력과 소양을 갖췄느냐 여부를 객관적인 조건과 엄밀한 기준에 의해서 전면적이고 복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자니고육 때문에 한 위장전입은 관찮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과 도덕 불감증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낙마사태를 청와대의 검증시스템 정비, 공직자 임용의 도덕적 기준 및 자격요건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국민 눈높이'를 외면해 또다시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자질 시비에 휩싸이는 일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은 이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중 국적, 논문 표절 같은 말에 넘어가지 마라.

비엔날레 D-4, 성공개최 차질 없어야

아시아의 대표 비엔날레이자 현대미술 축제인 2010 광주비엔날레 개막이 나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내달 3일 개막해 11월7일까지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세계 31개국 134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고은 시인의 대표 연작시집 '만인보(10,000 LIVES)'를 주제로 전 세계의 다양한 이미지가 한자리에 모여 '이미지의 역사'와 '삶'을 조명한다. 또한 '나도 비엔날레 작가 : 만인보+1'의 25개 전시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올해로 8회를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거 광주비엔날레와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권에서만 부산을 비롯 상하이, 시드니비엔날레 등 7개의 미술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산(9월11일~11월27일)과 상하이비엔날레(10월24

일~내년 2월28일)만이 개최되고, 광주가 가장 먼저 개막하는 만큼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 최고의 비엔날레로 자리 잡을 수 있는냐의 여부는 이번 대회에 달려 있는 셈이다. 그 성공 여부는 완벽한 준비와 외국인을 비롯한 관람객 규모, 작품작의 예술성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 개막을 목전에 두고서도 작품설치가 지연되고 전시 중에 작품이 망가지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사실을 이번엔 되풀이 필요 없다. 입장권을 공무원들에게 강제 할당하거나 학생 동원으로 관람객을 조절하던 구태도 버려야 한다. 이 모두는 비엔날레의 격을 떨어뜨리는 요동이다. 특히 남은 4일,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관람객 맞이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비엔날레가 명실상부한 국제 비엔날레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無等鼓

대한민국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1968년 국회의원 동우회로 창립했다가 1989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한 사단법인체다. '민주헌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도연구와 정책개발 및 사회복지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호는 거창하지

정안은 재서 의원 191명 중 찬성 187명, 반대 2명, 기권 2명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더욱이 이 지원금은 국회의원 재직기간이나 비리연루, 자결박탈 여부는 물론 재산 규모와도 상관없이 사망 때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금제법을 한번이라도 달린 평생 노후보장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의원들은 특별 회원으로 참여한다.

당초 국회의원들이 세비의 일부를 모아 운영해온 헌정회는 1988년 연부 연로한 회원들의 생활 보장과 품위 유지를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아 지원금을 쥐웠다. 올 지원금은 매달 12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은 790명에 달한다.

국회가 지난 2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금을 명문화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생활보장' 지원금을 아예 법제화한 것이다. 개

시민단체들은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데다, 서민 문제는 외면한 채 특혜만 챙겼다는 비판이다. 헌정회 홈페이지에도 '국회의원이 로또냐' '국민 혈세로 품위유지하려 하느냐'는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생활고를 겪는 전직 의원의 딱한 처지가 이따금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그들을 돕는 것은 의원들끼리 추렴해 하는 게 맞다. 우리 사회에서 전직 국회의원이 노후를 걱정할 만큼 곤란한 취약계층인가? 국회는 당장 관련 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후식 정책부장 who@

헌정회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康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2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